

아버지의 묘는 어디에?



김원길 소장

전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부국장,
항공사령부 참모장, 소장.

약 력

- 1912 원동변강수청시(현재 빨찌산스크)에서 출생
- 1934 원동변강 우리지오보스도크시 고려사범대 입학
- 1937 ~~1941~~ 카자흐공화국 크슬오르다시 사범대학 역사학부 졸업
- 1938 김에까찌레니나와 결혼
- 1944~1947. 8 원동변강 태평양함대 우리지오보스도크시 해군부대 근무
- 1945 나진, 청진 원산등 상륙전 참가
- 1947. 8 제대. 북조선 도착
- 1947. 8~ 1958. 12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부 부국장. 항공사령부 참모장, ~~참모장~~ 독립여단여단장(소장)
- 1959 1. 16 출근 이후 행방 불명

나의 아버지 김원길은 1912년에 원동변강 연해주 수청시(현재 빨찌산쓰크)에서 탄생하였으며, 1934년 원동변강 우라지보스도크시 고려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1937년에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로 말미암아 그 대학과 같이 이주하여 1938년 카자흐공화국 크슬오르다시에서 사범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였다.

그 후 따슈겐트주에 파견되어 따슈겐트주 인민위원회 교육부는 나의 아버지를 중칠치구역 끼로브 명칭 국영 경리내에 있는 고급중학교 역사교원으로 파견하였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 김에까찌레리나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나는 1939년에 태어났으며, 나의 누이동생 밀라는 1942년에 출생하여 우리 오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아주 평화롭고 호화롭게 자랐다.

1944년 아직 소련인민들의 조국전쟁은 반타격전으로 전선에서는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이 시기에 나의 아버지는 군사동원부의 명령을 받고 우리 세 식구와 작별하고, 원동변강 태평양 함대 우라지보스도크시 해군기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일제의 침범을 경계하고 있던 전체 해병들과 함께 긴장한 군사적 태세로 군사 복무를 수행하였다.

전쟁을 끝낼 목적으로 소련군 수뇌부는 일년간에 계속되고있는 조국전쟁을 신속히 끝낼 목적으로 소련군 수뇌부는 연합군의 신성한 의무로 1945 8 월 9일 아침에 공식적이며 명령 하달과 함께 일본정부에 전쟁 포기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원동변강에 위치하고 있던 육군 제1, 제2 전선과 때를 같이하여 소련 태평양 함대로 대일본 정복에 참가하게 되었다. 바로 이때에 나의 아버지는 태평양 함대 해병 육전대로서 4진 해방 전투에 참가하였다.

1947년 8월에 모스크바로
부터 당중앙의 명령을 받고 소

련군에서 제대되어 집에 돌아
와 가족들을 데리고 조선민주
주의 인민 공화국에 파견되어
가서 일하게 되었다. 조선에 도
착한 이후 아버지는 조선인민
군 총참모부 작전국 부국장, 항
공사령부 참모장, 직속 독립여
단 여단장 등 직책에서 일하였
으며, 군사 칭호는 소장이였
다.

1958년 12월이 되자, 그 후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
지는 아주 수심을 품으면서 고
민하기 시작하였으며, 한숨도
종종 쉬는 표정이 보였다. 한
다. 그후 1959년 정월 16일, 바
로 금요일이었는데, 아침에 아
무런 말씀도 없이 일하러 나가
셨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너무나 이상
하여 여러곳에 전화하여도 알
아볼 길이 전혀 없었다. 2일이
지나, 월요일이 되자 사무실에
나가 물어본즉 — 아마 출장갔
을것입니다. — 라고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그래도
한나라 정규군 소장인데, 아무
런 소식도 없이 잃어지고 말았
다.

중

나는 그 당시에 소련 유학중
이여서, 어머니 혼자 애를 쓰면
서 인민총참모부, 당중앙간부
부, 소련 대사관 등에 다니면서
아버지의 거처를 알려고 하였
으나 전부다 헛된 일이었다. 나
중에 알고보니, 김일성은 자
기의 정치적 불신임자들을 직
접 체포할 아무런 근거도 없을
때에는 이렇게 슬그머니 납치
하여다가 처단하여 버리는 것

을 자기의 독재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악독한 괴수 김일성의 발톱에 걸려 김만석 아저씨도 내무성 호위처장 직책에서 일하다가 출장보내었다하고 슬그머니 처단하였으며, 노동성 박태준 부상도 납치하여 처단하여 버린 사실들을 우리들은 현재에 와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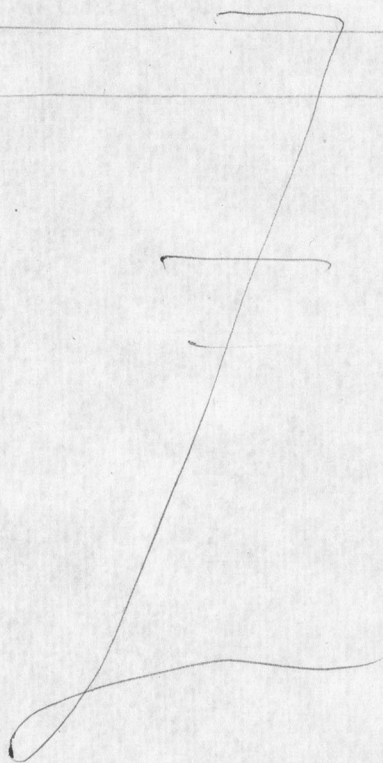
김일성은 인민의 국가요, 또 민주주의 국가요 하면서 과거 김일성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죄다 처단하여 버린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는 중학교에서 공부하였고, 출가후 우리 모수이를 데리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1944년 까지 인간다운 생활을 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본태 축구선수로써 아주 건강한 몸으로 대학 시절에는 까사흐공화국 축구 시합에 참가

- 리 침한 ^의 처가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공보되어 집을 떠난후에도 학교에서 계속 일하시면서 일가 친척들의 방으로 고생을 체험하게 않았다. 그후 4의 아버지와 함께 북한에 1948년에 도착하자 고급군인의 가족으로 이 ^동 ^의 ^중 ^심 ^을 ^보 ^고 ^있 ^는 ^것 ^이 ^다 ^고 ^생 ^각 ^하 ^고 ^있 ^다 ^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어머니는 우리 모수이를 데리고 중국 만주에 후퇴하여 가서 살았다. 여기에서 3년간 살다가 다시 평양에 도착하였으나 전후 복구시기 ^당 ^양 생활은 좀 곤란하였으나 그러나 ^막 ^어 ^막 ^시 ^기 ^즉 나의 아버지 감금당한 이후 평양생활은 생계목생계였다. 반당, 반인민 종파분자로 몰려서 평양 빛농강 주변 ^수 ^굴 ^막 ^{에서} 일년간 어머니는 4의 누이동과 함께 생계를 엮어가면서 그태로 ^생 ^여 4의 아버지를 구출하여 볼가하여 여러 상부기관에 돌아다니면서 ^어 ^제 ^까 ^리 ^사 ^모 ^님 ^{으로} 부르며 ^꽤 ^잘 ^대 ^하 ^여 ^주 ^던 ^사 ^람 ^들 ^이 ^보 ^도 ^어 ^머 ^니 ^의 ^정 ^치 ^적 ^적 ^이 ^되 ^어 ^이 ^반 ^인 ^민 ^분 ^자 ^당 ^신 ^을 ^부 ^수 ^받 ^아 ^말 ^은 ^가! ^그 ^태 ^로 ^불 ^쌍 ^히 ^여 ^러 ^능 ^충 ^{으로} ^내 ^려 ^보 ^내 ^는 ^데 ^가 ^지 ^는 ^안 ^고 [?] ^하 ^였 ^다. 4의 어머니는 능충으로 가면 죽임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소련대사관을 거쳐 소련 회교노베르에 국적을 회복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였다. 국적이 회복되었다는 통지서를 소련대사관에서 받았으나 어머니는 오래동안 소련으로의 귀국에 대하여 동요하다가 그래도 아이들의 복습이 ^살 ^기 ^위 ^하 ^고 ^결 ^심 ^하 ^고 ^있 ^는 ^것 ^이 ^다 ^고 ^생 ^각 ^하 ^고 ^있 ^다 ^가 ^나 ^의 ^아 ^버 ^지 ^를 ^김 ^일 ^성 ^장 ^도 ^원 ^{에게} ^남 ^취 ^당 ^하 ^고 ^죄 ^를 ^부 ^르 ^고 ^항 ^쟁 ^을 ^떠 ^나 ^왔 ^다. 4의 구이동생 밀라를 데리고 우크레인에 돌아온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의 오빠가 친절하게 맞아 주었다

아무리 잘 맞아 큰 오빠의 집이라 하여도 그 집에서
 계속 밥 먹고 살 수는 없었다. 때문에 아직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딸라는 오빠네 집에다 떨어두고 오빠를 따라 우크라이나
 - 백로시아, 캅카스 지방에 돌아 다니며 협동조합들의 제철로
 - 동자로 남자를 대신하여 해마다 - 해마다 갓인고생을
 ~ 라하면서 자나 깨나 나의 아베게로病的 반감은 소식
 이 오기만 기다리면서 울면서 살았다. 이렇게 20
 여 년간 외지에 돌아 다니며 힘에 넘치는 로동을
 - 계속한 어머니는 내공에 모래-모래 궁환에 걸려
 앓으시다가 후에 가득찬 원한을 풀지 못하시고
 1982 년에 세상을 떠나시었다.



나는 196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차르조우 선박수리 공장 동력 총기사로 1975년까지 일하다가 어머니가 계시는 따슈겐트에 이주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따슈겐트 전기시설품 공장 실험실 상급기사로 일하고 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아버지를 생이별하고 한숨과 눈물로 선조들의 고향땅을 하직하고 소련땅에 도착하여 매일 나의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일하면서 살다가 1982년에 세상을 마감하였으나 가슴속에 원한은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시었다.

5

나에게는 현재 대학을 졸업한 큰아들과 중학을 졸업한 둘째 아들이 있다. 이들은 항상 벽에 걸려 있는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쳐다보면서 언제나 “제두스까에 대한 편지가 오겠는가?” 하고 묻는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들은 나의 아버지가 세상떠난 날을 모르며,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죄로 납치되어 목숨을 빼앗기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소련군대에 의하여 조선이 해방된 후 일개월이 후에야 소련으로부터 평양에 들어와 조선인민의 해방자로 가장하고 소련군의 허수아비가 되어 독재정권을 세우고 죄 없는 무수한 인민을 학살하면서, 그것도 부족하여 돈만 알고 계집질만하는 자기 아들에게 그 정권을 세습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들과 함께 어느 때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아버지의 묘를 찾고야 말것이다.

김원길 소장의
아들 김로베르트

